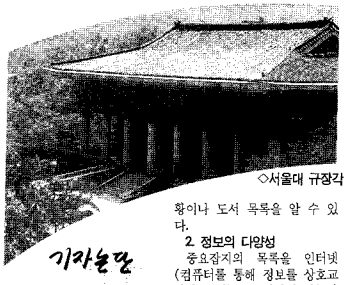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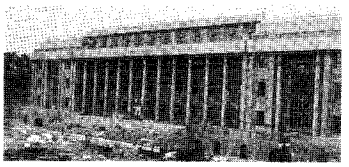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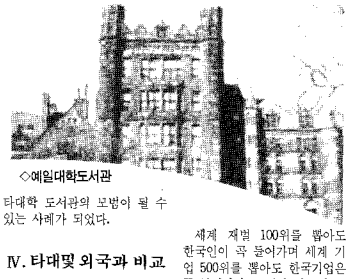

◇서울대 규장각


◇수원캠퍼스도서관


◇예일대학도서관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

외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도서관

정보 보급 및 탐구의 장 기능 하길

기자논단

Ⅰ. 개관 카운트 다운

교내 도서관 개관을 즈음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과 '질적인 면'이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측에서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 준공검사가 11월말 내지는 12월에 이뤄지는 관계로 '완전개관'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개관일은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기 위해 도서관 공사 및 정리문제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노력 중이다.

학생측도 도서관 개관일을 전후한 대동제 계획 및 시험기간의 변동 등 학사행정이 전체적인 혼란을 겪는다는 점과 필요할 때 도서관을 이용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날짜기한을 두고 밀고 당기는 '생산성 없는 싸움'에만 열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물음에 접근했으면 한다.

Ⅱ. 몇가지 내용적 특징

1. 완전 자동화

바코드가 부착된 학생증으로 자동대출되며 20여개의 단말기로 자동검색이 가능하다.

11월 중순부터는 각 학과 사무실 및 교수연구실 등 LAN이 깔려 있는 모든 곳에서 대출상황이나 도서 목록을 알 수 있다.

2. 정보의 다양성

중요잡지의 목록을 인터넷(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타대학과 협약을 통해 책을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제도(Inter library loan)도 도입된다.

한편 포항공대 도서관과 모뎀이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정보획득 및 도서검색이 가능하므로 포항공대와 연계된 16개 대학과 접속도 가능하며 95년 1학기 초순에 고려대, 숙명여대와도 자료의 상호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3. 정보의 중앙 집중화

도서실문화는 보통 생각하듯 문헌정보의 기능만이 아니다. 음성정보·마이크로 필름·전산·CD롬 등을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①음향영상자료실(AV Room)

음향영상자료실은 애초 계획만큼 넓지는 않지만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어학 테이프 등의 다양한 자료가 비치된다.

②전산실과 컴퓨터 교육

1호관에 있던 전산실이 옮겨와 종래의 기능을 하며 컴퓨터 교육도 더불어 실시할 예정이다.

4. 편의시설 및 이용안내

①카롤(carrol)

1평 남짓한 개인 공부방이 8개 배치되었고,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빌릴 수 있으며 여러날 동안 논문 등을 쓰고자 하는 박사과정이상에게 이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②구입희망도서 신청방법

학생구입희망도서 신청서에 소정의 양식을 기입하면 거의 99% 도서관측이 구비해 놓는다.

③타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출입의뢰증'에 소정의 양식을 기입하면 다른 대학 도서관 및 외부도서관을 이용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배부한다.

5. 추진·구상중인 일

①양질 책 반납 상호가능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수원캠퍼스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게 된다.(한국외대 등에서 현재 실시중)

이는 중앙도서관의 바코드 설치가 완료되면 곧 가능해 질 것이다.

②대출권수확대

장서를 구비하는 즉시 최고 대출권수를 5권으로 늘인다.

③와이드 스크린(가로세로16 : 9비율의 영화관 크기의 스크린)

'음향·영상자료집'에 설치 계획중.

④정회가족 출판물 열람

교수·학생·교직원·동문등 경희인들의 출판물을 따로 열람하는 공간을 만든다.

⑤회귀본도서 열람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시일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Ⅲ. 도서관 문화에 대한 여러견해

도서관장 허충(외국어대·영문과)교수는 "대학의 도서관은 학문의 상징이며 대학은 그 도서관의 전산화는 도서의 훼손및 도난방지, 대출업무의 신속성등 우리학교 도서관직원에 비하면 3~4배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도서관 정보자료실 박현수씨는 "우리의 경우 1953년에야 연세대에 문헌정보학과가 처음 개설되어 뿌리가 얕은 편이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 대학 도서관직원의 위상은 그저 일반직원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도서관은 91년 2학기부터 전산화되어 마크드부작 학생증으로 출입통제 및 대출의 자동화, 분실의 위험이 감소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서울대 도서관 전산실의 노수연씨는 "서울대 도서관은 학교전산소를 빌려 VAX System에 Data Base를 구축하였고 인터네트(Internet)한국분부로서 국·공립대학의 운영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교적 발전된 서울대 도서관의 전산망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대출자료검색의 전산처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분류목록 카드를 찾고 있는 모습이 눈에 뜨인다.

반면 개관될 우리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분류목록카드를 찾아야 할 도서는 '원서'뿐이며 대부분 도서의 검색은 작동이 간단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학교 도서관보다 3년 일찍 시행된 서울대 도서관의 전산화는 도서의 훼손및 도난방지, 대출업무의 신속성등 다.

인도의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은 '도서관은 자라는 기관'이란 말을 했다. 굳이 이말을 빌리지 않아도 도서관의 장서는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대학 도서관 장서량과 미국대학 도서관 장서량을 비교해 보자.(아래표 참조)

장서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서울대를 능가하는 미국의 대학은 무려 99개나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중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인도에도 상위권에 진입한 명문대학이 있다.

타대학 도서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Ⅳ. 타대및 외국과 비교

1992년 신동아 5월호는 외국대학과 우리나라대학 장서수를 비교하고 있다.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하버드대가 1천1백87만권(이하 90년 통계), 예일대가 8백86만권, 캘리포니아 버클리대가 7백54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세계 제법 100위를 뽑아도 한국인이 곡 들어가며 세계 기업 500위를 뽑아도 한국기업은 꼭 들어간다. 그러나 한국의 그 어느 대학도 세계대학 500위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Ⅴ.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

교육열이 뜨겁기로 유명하고 두뇌가 우수하다는 민족인 우리나라 대학수준이 왜 이런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은 '독서실'의 기능이 더 강했다. 그 결과 시험때가 되면 '메뚜기'까지 힘세해 들끓지만 평소에는 한적한 기형적 열람실 문화가 바로 우리의 '도서관 문화'인 것이다.

요즘 들어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자유로운 탐구를 통한 지혜와 지식의 확장을 가능케하는 교육으로 그 방향이 선회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폭넓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 깊은 탐구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대학인들은 제대로 대학공부를 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그 규모 뿐아니라 첨단정보 시스템이나 전산시설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7년간의 산고와 난항 끝에 개관을 맞게된 도서관.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두고두고 경희인의 자긍심의 상징이 될 도서관이 개안을 위한 역사적인 몸짓을 시작 하였다.

대학을 인체로 비유할때 대학의 도서관은 심장이다. 동시에 도서관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상상하고 깨끗한 혈액의 원천인 것이다. 〈이유경 기자〉

---

94 세계 광고 영화

한국CF제작사협의회는 '94세계광고영화제 수상작 시사회'를 가진다.

이 협의회는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작품(creative)'의 국외의 새로운 시도와 국내광고를 대비해보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오는 11일에서 12일까지 양일간 개최, '11일회 : 오후1시~오후3시10분, 2회 : 오후3시30분~오후5시20분, 12일1회 : 오후1시~오후2시50분, 2회 : 오후3시10분~오후5시'의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회의실.

예매는 오는 4일부터.(참가비 : 2천원)

□ 문의 : 736-9473.

영화창구 '화혼' 상영

'붉은 수수밭'과 '국두'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장예모 감독의 세영화 '화혼'이 곧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시공유 초월한 파리현지로케에서 장리의 동양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잘못된 사회인습으로 인해 비극적인 짐을 짊어오면서도 조국을 간절히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술화시켜 표현했다.

□ 문의 : 427-4014.

공연안내

김명인과 함께하는 가을 시 와 시 평

가을에

모감주 숲길로 올리가니
잎사귀들이여, 너덜너덜 늙어서 너희들이
염주소리를 내는구나. 나는 아직 매즘의 빛 벗지 못해
무성한 초록 귀래기마다 퍼여진
잎새들의 생생한 비췸스럴 얻고 있다
그러니 이 빛 탕갈빈도록
아직은 저 채색의 시간 속에 나를 놓아다오
세월은 누가 만든는 동부동을 지나느라 호벅지게
참꽃들이 기어오르던 능선 끝에는
벌써 잎 지운 굴참 한 그루
늙은 길은 신맥으로 휘어지거나 둘판으로 비워지거나
다만 억새 못 없는 바람결는로 일렁이거나

◇김명인 시집 〈물건너는 사람〉 중에서

'가을'에 대하여

뒤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을은 늘 세삼스럽다. '어질거리는 바람 든 산천, 병든 벌판의 아린 기억' '약에 취하면 몸이 먼저 몰릉해지는 여름 한낮의 기억'임에도, '생활이 하비장해서 막막하기로야 나무들도 어디 뒷골목쯤에 차린 망명정부 같던'봄닢 오후임에도 들어켜 생각할 수 있는 가을은 어쩌면 행복하기 조차하다. 계다가 '흔해빠진 길들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은 저렇게 바삐게 오고 가는'겨울이 남았을에야.

그런데도 김명인의 가을을 지켜보면 해묵은 상처를 가만가만히 더듬거리는 찬찬한 슬픔을 만나게 된다. 모감주 숲길을 올라가면 니덜너덜 낡아 빠진 염주소리를 내는 잎사귀들이 있고, 기억해야 할 예증의 빛을 벗지못하는 잎새들이 생생한 바람소리를 담고 있는 가을에 김명인은 서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을 탕감하기에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아직은' 저 채색의 시간속에 나를 놓아다오.' 세월이 흘무림을 지나가버리고 참꽃들이 기어오르던 능선 끝에 잎지운 굴참 한그루만이 '또 다시 우리들이 가야할 길은 휘어지거나 비어지거나 그냥 바람소리에 일렁이거나' 해야하는 슬픔만이 온통 가을을 채워놓고 말았다. 도와줄 그 무엇도 그에게는 있지 않는 듯 하다.

그래서 시인 김명인은 방황한다. 절망의 등지는 풀지 않고 다만 자유롭게 서성거리는 깔새가 되기도 하고, 해거름 속을 몰아다니는 늙은 말이 되기도 하며, 방죽에 주저앉아 넋마저 내리는 몇 마리 철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을은 여전히 허전한 공복일 뿐, 어떻게 채워야 하는 줄 모르고 우리는 세월에 빌붙는 알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가을에는 우리들앞에 놓여진 가야할 길과 가는 길의 연실과 허무와 막막함이 하나 들씩 웅크리고 있다.

김명인의 시세계

존재와 동일한 길위에 서지 못한 서글픔, 혹 같은 길에서 가지들이 휘는 곳으로 귀를 달고 매마른 세상에서 오는 죽음의 벼석거림을 듣고 있으며 막막하기로는 십년 뒤에 저부는 황혼 같은 늙은 잎들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그의 시가 퇴폐적이거나 감상적 허무주의자들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동병의

해묵은 상처를 다독이는 슬픔

아픔을 느끼는 이들의 무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인의 가을에는 슬픔이 배어있으며, 그 참을 수 없는 서글픔속에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애달픈 인내가 숨어서 우리를 서글프게 만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벼락 떨어진 자리에 꽃잎 하나'가 '몸이 몸을 그리워하듯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관조와 '얼마나 더 오래 달려야 LA의 길은 끝이 나는지'알수 없지만 그래도 무심하게 살아가며 견디어야 하는 생활들이 있는 것이다.

'여린 꽃가지 단풍들고 한 잎씩 저버리고 가야할 슬픔인 듯 잎잎이 놓아버려 텅비는 하늘'에도 '신열에 들뜬 세월을 끌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은' 이 가을 썩어 건너가버린 희망 때문에 '목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이유인 것이다.

박 웅
〈외대 영문 88〉

◇국내 주요대학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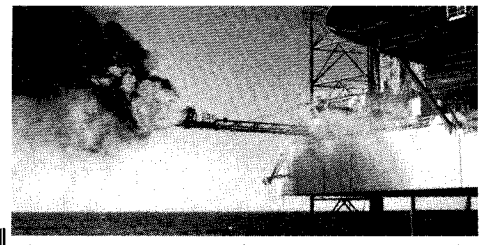
	도서관수	개관	장서량	열람석수	특징
경 희 대	2	1951	91만	5천3백	대출업무 전산화
고 려 대	9	1937.9	1백10만		계열별 분류
서 강 대	1	1960.4	28만	2천1백2	대출업무전산화
서 울 대	4	1964.8	60만	5천2백59	대출업무전산화
성 균 관 대	2	1946	59만6천	4천4백	고서화중심 이공계 특수도서관
연 세 대	2	1951	1백1만7천4백81	5천87	
이 화 여 대	1	1923	70만	4천	
중 앙 대	2	1949	50만	3천6백15	개인연구실 및 시청각자료센타
포 항 공 대	1	1987.3			교수연구지원 학생교육지원
한국교원대	1	1987.12	15만	1천2백	지역정보 확충 전산화
한 국 과 학 기 술 대	1		4만5천3백	2백5	
한 국 외 대	2	1954.4	80만	3천46	
한 양 대	4	1984	50만		계열별 분류

빈공간은 94한국대학 연감에 자료가 없기에 표기하지 않았다. 〈편집자〉

21세기 세계 일류 기업을 목표로

환경·경영에서 실천으로

이 모든 사업을 유공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석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낯가동한 얘기라고 했지만 유공은 해냈습니다. 1985년 마리브 광구에서 1990년 이집트 북사파라나 광구에서, 그리고 최근 개발된 리비아 광구까지 유공은 해외 유전개발을 통하여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걱정없는 미래사회, 유공의 목표입니다.

고도의 정제기술로 고품질 휘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유에 개발한 소중한 석유를 유용하게 정제하고 있습니다. 하루 61만배럴의 원유정제 능력으로 국내 석유수요의 40%를 해결하고 있는 유공은 제1, 2기 중질유탈황·분해시설과 같은 시설고도화를 통해 깨끗하고 질높은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품격의 윤활유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로 유공은 석유의 유용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스에서 대체에너지까지 더욱 좋은 에너지를 생활에 전합니다.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위해서 유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LPG인수기지를 갖춘 유공가스를 통해 국내 가스 수요의 3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5개 주요도시에 도시가스사업 실험, 가스 연료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스에서 대체에너지까지 유공은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생활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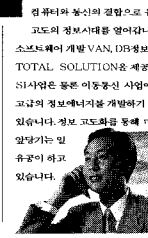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 첨단화학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산 55만 5천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고있는 유공은 기초유분, 용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산업용품의 핵심이 되는 화학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원료로 더욱 기능이 강화된 특수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대덕연구소를 비롯하여 울산연구소, 인천고분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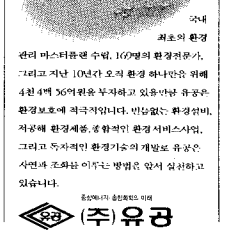
그리고 미주 R&D센터의 연구원들은 첨단화학에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다양한 첨단화학제품의 개발로 미래의 풍요를 유공이 만들어 갑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새로운 에너지,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유공이 고도의 정보시대를 열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VAN, DB정보통신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SI사업은 물론 이동통신 사업에 이르기까지 고급의 정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 고도화를 통해 미래로 앞당기는 일 유공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받은 고마움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환경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160명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지난 10년간 오직 환경 하나만을 위해 4천4백 36억원을 투자하고 있음이란 유공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입니다. 빈틈없는 환경설비, 저공해 환경제품, 종합적인 환경서비스사업, 그리고 독자적인 환경기술의 개발로 유공은 사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공 (주)유공

SUNKYONG 鮮京그룹